

26과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김현호p)

아.. 먼저 성경 고린도전서 16, 10장을 보도록 할,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어..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고전 10:6-7)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거한 것같이 즐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6 Mas estas cosas sucedieron como ejemplos para nosotros, para que no codiciemos cosas malas, como ellos codiciaron.

7 Ni seáis idólatras, como algunos de ellos, según está escrito: Se sentó el pueblo a comer y a beber, y se levantó a jugar.

예. 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 의 그 역사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하나님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사람들 각자의 그 반응, 삶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또한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 안에서 우리 그.. 자신의 모습을 또한 보아야 하고 또한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제 24과의 말씀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공부할 때도 어, 단순히 아주 먼 오랜 그.. 오래 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론.. 이렇게 그.. 이야기로만 한정지어서 생각하고 또 그걸 지적으로,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되고 또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러한 사건들의 연속 가운데 있으며 또 내가 그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때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출애굽기 32장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출32:1-6)

- 1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 2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 3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 오매
- 4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 5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와 절일이니라 하니 6 이튿날에 그들이 일찌기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Viendo el pueblo que Moisés tardaba en descender del monte, se acercaron entonces a Aarón, y le dijeron: Levántate, haznos dioses que vayan delante de nosotros; porque a este Moisés, el varón que nos sacó de la tierra de Egipto, no sabemos qué le haya acontecido.

2 Y Aarón les dijo: Apartad los zarcillos de oro que están en las orejas de vuestras mujeres, de vuestros hijos y de vuestras hijas, y traédmelos.

3 Entonces todo el pueblo apartó los zarcillos de oro que tenían en sus orejas, y los trajeron a Aarón;

4 y él los tomó de las manos de ellos, y le dio forma con buril, e hizo de ello un becerro de fundición. Entonces dijeron: Israel, estos son tus dioses, que te sacaron de la tierra de Egipto.

5 Y viendo esto Aarón, edificó un altar delante del becerro; y pregonó Aarón, y dijo: Mañana será fiesta para Jehová.

6 Y al día siguiente madrugaron, y ofrecieron holocaustos, y presentaron ofrendas de paz; y se sentó el pueblo a comer y a beber, y se levantó a regocijarse.

예. 조금 전에 그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7절에 그들이 행한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또 어떤 일이 거울이 되는지가 꼭 나와있는데 그중에 7절에 첫번 째 나온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 사건의 전반적인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써 이 사건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시작은 32장 1절에서 어.. 우리가 그 시작을 엿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

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곧... 이 모세,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그들을 애, 이집트,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냈다 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지금 바로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인도하고 아니, 의지하고 또 어.. 보았던 것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모세의 그 부재,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은 될지언정, 자신들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으면 곧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것이 예.. 그것이 곧 그들에게 이제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또 홍해의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동시에 그들인, 그들이 예.. 앞으로 생활해 나가는데 극복해야 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 구원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생활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함께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아, 과연 함께하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뭔가 느껴지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 다른 뭐..

눈에 보이는 뭐.. 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그것이 곧 그들로 하여금 이제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롬 1: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1 Pues habiendo conocido a Dios, no le glorificaron como a Dios, ni le dieron gracias, sino que se envanecieron en sus razonamientos, y su necio corazón fue entenebrecido.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아직 잘 모르는 상태 예? 어중간하게 아는 것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중간하게 아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에.. 형상. 우상의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그들이 그 행하는 그런 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죄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그.. 십계명을 내리실 때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는 그 말씀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사실 그 순서는 사람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하나님을 향해서 짓기 쉬운 그런 죄들의 순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네 가지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를 섬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형태로 만들어놓고 하나님을 어떤 모습을 제안하고 그런 죄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현재 우리의,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은 우리 자신이 또 쉽게 빠지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많은 그 형상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의 모습으로 만들었을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형상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왜 하필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이집트에서 행해지던 우상숭배의 풍습가운데

황소를 섬기는 황소를 만드는 우상숭배가 유행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보고들은 것이 잊혀진게 아닌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을 때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옛습관이나 생각들이 바로 사라진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때로는 그 습관이 우리를

좌지우지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잠깐 놓치게 되면 예전

습관이 바로 나타나서 나를 예전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부재가

하나님의 부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드려고 하자 바로 떠오르는게

무엇이냐?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지 하다가 떠오르게 이집트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또한 황소형상을 숭배했던게 이집트 뿐만 아니라 가나안 주변의

나라들도 숭배했던 우상의 형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황소를

숭배한 풍습은 있었지만 송아지는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황소는 안 만들고 송아지를

만들자고 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뭔가 어설픈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신분에 안 맞기 때문에 엄청 어설픈 거

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써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 등 섬기는 일을 하다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일을

하려고 하면 세상사람과 비교해서 굉장히 어설픈 것과 같은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이상한거게요, ‘교회다닌다면서 이런것도 하나?’ 이런 것처럼 이상한 거예요.

황소 섬기는 모습은 있었지만 송아지 섬기는 일은 드문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설픈게

우상 숭배를 한거예요, 송아지를 만들어놓고 하나님이라고 어설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20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

말씀 시작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능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말씀 끝 ----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살면서 가지고 있던 습성들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오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습관들이나 익숙했던 것들이 쉽게 버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다가도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부재가 느낄 때가

언제냐? 예를 들어 ‘악한 사람이 잘될 때’ 시험을 봤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

데 성적이 잘

안나오고 컨닝하면서 성적을 잘 본 친구를 볼 때 우리는 불의가 더 잘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수 있어요, 또 ‘착한 사람이 병들 때’ 등등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산에 가서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그들이 익숙한대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된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말씀 시작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씀 끝 -----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시고 27절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27절

말씀 시작 ---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말씀 끝----

그들이 우상숭배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 할 것을 명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백성을 심판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멸망하는 죄인을 심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백성, 자녀를 향한 심판은 징벌로써가 아니라 징계로써 그들을 단련해서 한층 더

나아진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죽이기 심판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고 할찌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 우리를 한층 더 나아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단련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징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지만 이 심판은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받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내리신 징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사건에서 우리는 두명의 대비적인 인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물은 아론과 모세입니다.

아론이라는 인물 먼저 살펴보면 출애굽기 32장 1,2절을 보면

말씀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말씀을 중간에 끊으셨음 ----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찾아간 인물이 아론이라는 것은 모세과 아론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 때

찾아갈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아론이 이때 해야 될 당연한 일은

‘모세가 안보인다, 모세가 어떻게 된거냐?’ 백성들이 아우성 칠 때 아론이 정말 올바른

지도자 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에게

어떤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기억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넣어주고.....

아론이 정말 올바른 지도자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그들에게 했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고 그들을 다시 인도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된거예요

2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 오라

그랬잖아요?

그니까 뭔가 그러한 노력을 해보기도 전에 즉각적으로 그들의 어떤 귀고리, 금고리 다 가져오라 하고, 벌써 아론은 백성들이 찾아와서 요구하는 순간에 머릿속에 딱 뭔가 그려진거죠

뭔가 만들어야 겠다,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인간적인 기술이 동원된 거예요, 인간적인 기술이.

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믿음이나 기도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자마자 바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백성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이 아론이 백성을 오히려 정말 살리는 자로서

세우는 자로서의 위치로서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범죄하는 데로 인도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 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주고, 새로운 땅을 주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데 지도적인 위치를 발휘했는데, 발휘했던 그 아론이, 결국 그들을 죽게 만드는 위치가 되버렸다. 이걸 참 아이러니 한거예요

그와 반대되는 인물인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모세는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부패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듣자마자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모세의 그 간절함과 하나님의 아주 냉정함이 또 엿보여요.

조금 전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모세의 백성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는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결코 거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11절에 기도하는 가운데 ,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한테 어째서 진노하십니까, 라고 물려서지 않고 어때요, 끝까지 백성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만약 하나님께서 인도하여낸 백성을 하나님이 진멸해버리신다면 죽일려고 데리고 나온 겁니까? 이 목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것은 살리기위해섭니까, 죽이기 위해섭니까, 가나안으로 들이기 위해섭니까 아니면 여기서 죽이기 위해 섭니까 라고 하나님께 당당히 따지듯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게 만들죠,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기신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힘입어서 모세가 아주 담대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앞에 기도를 하죠.

이 모세의 이 기도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됩니다.

여기서 아주 아론과 모세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요.

둘다 똑같이 이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정말 지도자의 위치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 틀림 없는데 , 구분이 안가는데 , 하지만 이 사건을 맞이하자 아론은 자신의 기술,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서 오히려 백성을 안돈 시키려 하고 백성을 진정시키려 하다가 도리어 백성을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하고,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결국 백성을 다시 살려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

자, 정리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것이, 우리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육신의 습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이고,

상황,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의지해서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다.

오직 ,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걸 다시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한번 기억해야 되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들, 상황들, 사람들, 물질들, 돈, 요즘 우리시대는 우리시대는 어떤시대예요?

감각시대 아닙니까, 감각시대.

느껴지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되고, 그리고 혹 우리가 잘못했을 때라도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이 있을 때 ,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을 때, 그 징계가운데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는, 징계하시는 것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혹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는다 할찌라도 그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는 가운데, 결국 우리가 다시 세워지고 성숙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고, 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라는 표현처럼, 세상사람들에게 리더가 되어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우리가 때로는 아론과 같이 될수도 있고, 때로는 모세와 같은 살리는 인물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로 이끌어가는 모세와 같이 살리는 데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인물이 되어야지 사람들을 죽이는 아론과 같은 인물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특별히 교사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훈들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변화시키는데 살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